



32 번째

니카라과 기도편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을 오르다



비가 내리는 산에 오르다가 큰 웅덩이를 피하려다 길가 옆으로 빠져버린 선교사 차량. 감사하게도 조금만 더 빠졌으면 차가 뒤집힐 수 있었는데 멈췄고 산속에 트럭이 지나가면서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와 사역시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국경 근처 산악지역 250 여명의 어린 영혼들과 함께 하다

작년 12 월, 북쪽으로 7 시간정도 걸리는 San jose bocay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고생하던 길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약속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그 길을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나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제자들까지도 니카라과로 와서 함께 산에 올라 그 길이 더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산 속 이곳 저곳에서 모인 250 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선교사가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눔 선생님들과 산악 지역 아이들
250 명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

차에 사랑을 가득 담고
기쁨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김성현 선교사도 놀지 않고 도왔습니다.^^

이번 산악선교를 함께한
나눔학교 선생님들과 한인 제자들.

이들의 열정적인 섬김을 통해서
약 250 명의 아이들과 즐거우면서도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옷과 물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

주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들을 전해드리고
그 수입은
앞으로 시작할 건축을 위해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을
하나님께 드리다

사진] 리더들과 함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건축한 집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다

작년 11월, 나눔학교 에리카 선생님 가족이 신세지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4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사역을 도왔던 선생님이었기에 저희들의 마음 역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다’라는 선생님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의 믿음 약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의 씨앗과 같았던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처럼** 이 가정이 선교 사역의 씨앗이 되길 소망하며 선생님의 집을 자비로 건축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현지 가족이 땅을 기증하였고, 재정이 부족해지자 미국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드디어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벽과 지붕이 세워졌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선생님은 ‘이 집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현재 그 곳은 예배와 리더모임 등을 하는 귀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과 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이블타임 훈련을 마친 가족들의 성경 구입을 돕다.



6 개월간 열심히 바이블타임으로 성경 읽기 훈련을 가족들 중, 성경을 구입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2 월, 성경 읽기 훈련을 마친 Los Solices 교회 가족들에게 구입한 성경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제 구입한 성경을 통해 **보다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훈련하는 바이블 타임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달란트로 축구교실을 시작하다

지난 12 월 말, 저희가 가르치는 한인 이재철 학생이 나눔학교 아이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늘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고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축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네요.

준비물과 장소 대여비등에 자비를 사용하며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재철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의 헌신을 기대해봅니다.



예린이 드디어 유아세례 받다

2월 25일 니카라과에 들어간지 5년째 되는 날, 송탄북부교회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예린이의 유아세례를 존경하는 이용주 목사님의 집례로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오랜시간 병원에 있다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이번 세례식에서 예린이가 직접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삶을 예린이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번 유아세례로 인해 한발짝 더 다가가는 축복을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린이를 잠시 위탁 받은 부모로서, 세상의 눈과 가치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예린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예린이가 되도록 힘써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린이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는 기도가 니카라과 선교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



선교 부지 구입을 위한 첫 만남을 가지다

계속해서 교회와 센터를 세우기 위한 부지를 찾고 있었지만, 무섭게 오르는 니카라과 물가와 부동산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낮은 가격에 땅을 내놓는 이들이 없어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사역에 필요한 부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가?”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카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더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선교사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며 구입 가능한 부지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땅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은 참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만남에서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보이며 긴 대화를 나누었고,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땅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팔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많이 오른 부동산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어렵게 부지를 구입하게 됐지만 모두가 함께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행하실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계약을 준비합니다. 현재는 땅에 문제는 없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3-4 월 중에 일단 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땅을 구입할 재정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니카라과 특징상 법인으로 구매를 할 경우 많은 절차와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니카라과

기도제목



1. 3월에 있을 부지 계약이 무사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부지 구입을 위한 재정과 필요한 조건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나눔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예배 장소의 안정화와 리더와 선생님들을 굳건하게 하소서]

3. 김다이 선교사가 한국 체류 중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을 위해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건강을 주소서]

4. 김예린 3월달 입원과 좋은 검사 결과를 위해서

5. 김성현 선교사가 홀로 있는 동안 흔들림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